**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발휘하는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문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정도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의미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은 이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차원을 갖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큰 열심으로 박해하던 그가 예수 복음을 가장 큰 열심으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제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변화는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내 죄악 된 과거가 지워졌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심으로, 이제 나는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이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도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율법이 지배하는 옛 질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오셔서 죽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도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또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전체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나 역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이미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삶의 조건은 이전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속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구원의 교리만이 아니고, 그의 가슴을 늘 다시 뜨겁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가 살아간 믿음의 삶은 그 받은 사랑과 섬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의 비판자들은 ‘사람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전파한 바울에 대해 그것은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감을 약화시켜 율법을 범하도록 조장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이 위험을 막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폐기하신 옛 질서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종 노릇 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그의 비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마치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 종이에 쓰여진 율법의 요구보다도 힘이 없다 생각한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활력을 잃고 희미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복음은 내가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가르쳐준다. 즉 그분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